

국민은행 파업 관련 당부

2019.1.8

□ 금일 국민은행이 노사 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업에 이르게 되어 안타까움

○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, 은행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어

- 궁극적으로 주주, 경영진,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노사가 모두 더 잘 알고 있을 것임

○ 나아가 여타의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

-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임

○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함

○ 한시라도 빨리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

□ 우선, 이미 국민은행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, 금융위와 금감원의 위기대응반은 고객 불편 최소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 바람

○ 위기대응반은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파업진행 및 영업 상황, 고객 불편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즉각 대응하고

○ 오늘 현장에 나가 있는 금감원 현장상황반은 국민은행 측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

○ 특히, 최근에는 비대면거래가 90% 이상인 만큼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센터 방호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

□ 다음으로, 국민은행은 자체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고, 특히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할 것을 당부함

○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운영상황, 지점 운영상황, 제한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대해서 고객 접점인 인터넷 창, 모바일 앱, SNS, 영업점을 통해서 신속히 안내하고

- 아울러 언론에도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

- 특히 **긴급한 자금수요**가 있는 기업, 상공인 등의 금융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
 - 마지막으로, **전산시스템**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체인력 확보, 시스템 방호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
- 금융위와 금감원은 **위기대응반**을 중심으로 파업 및 영업상황을 철저히 **모니터링**하여 신속하게 **관리** 및 **대응**함으로써 **금융 시스템 안정이 확보**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